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2년도 제15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 “학생선수 결석규제 완화… 엘리트 체육 전환은 아냐”

조지원 서울경제 기자

학교체육 제언

尹체육공약 ‘초등스포츠강사 확대’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전영지 스포츠조선 기자

스포츠 & 과학

광주체육회 스포츠과학연구소, 체육인 유전자 분석·활용

류형근 뉴시스 기자

체육기자연맹

체육기자연맹 ‘새정부 스포츠정책 세미나’ 18일 개최

우은식 뉴시스 기자

COVID-19

‘치맥하며 소리질러!’… 25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가능

김동찬 연합뉴스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인수위 “학생선수 결석 규제 완화... 엘리트 체육 전환은 아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학생선수에 대한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 금지와 관련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다만 생활체육에서 엘리트체육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재현 인수위 부대변인은 15일 스포츠 혁신 관련 현안브리핑을 통해 학생선수의 출석 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종목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허용하는 재조정 등 합리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석이 인정되는 결석일 수를 권고 이전 수준인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1 범위인 63~64일 이내에서 자율 허용하는 방안이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학부모연대 대표와 국가대표 선수, 학교운동부 지도자, 국가대표 지도자 대표, 대한체육회 등 관계자를 만나 교육 현장 혼선과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현 정부와 달리 엘리트 체육을 강화할 것인지 묻자 “윤 당선인도 한쪽으로 치우친 체육 현장이 되면 안 된다는 방침”이라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을 두루 살피는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尹체육공약 '초등스포츠강사 확대'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코로나 '집콕' 3년차,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체력 저하가 심각하다. 지난해 교육부의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결과,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 하위등급인 4·5등급 비율이 12.2%에서 17.7%로 급등했다. 신체활동은 현격히 줄고, 아동비만은 급증했다. 서울시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생들의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26.7%에서 지난해 32.1%로 크게 늘었다. 아이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다. 이미 12년 전인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소아, 청소년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조 3638억원이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 신체활동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94.2%가 운동부족.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최하위이고 자살률은 OECD 상위권이다. 아이들이 뛰어놀지 않는 나라,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엔 미래가 없다. 스포츠조선은 내달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더는 미뤄선 안 될 백년대계,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3회에 걸쳐 게재한다.

"코로나 여파로 학생들의 기초체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스포츠강사, 지도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체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후보 시절인 1월 25일 '체육인이 바란다'에서 발표한 학교체육 관련 공약이다. "우리나라도 스포츠 선진국과 같이 유년시절부터 스포츠에 친숙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월13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39번째는 '초등학교 체육활동 강화'였다. "초등학생들이 방과후학교에서 스포츠 종목 하나씩 익히고 즐길 수 있도록 1학생 1종목을 권장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초등 방과후학교의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이 16%(19만3551개 중 3만1360개)에 불과하다.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초등학교도 많아 학생들이 스포츠를 접하고 익히기에 부족한 실정"이라고 직시했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풀뿌리, 국민 건강을 책임질 학교체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모두의 스포츠', 평생을 지배할 운동습관, 스포츠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학교에서 형성된다. 특히 영유아, 초등학교 시절의 체육시간, 스포츠 경험은 평생을 좌우한다.

윤 당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다. '방과후학교'를 통한 초등학생 1학생 1종목, 1~6학년까지 단계별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스포츠 강사 확보 및 전담인력 배치 지원 등 '초등체육'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장에선 '방과후'뿐 아니라 국민건강의 기본이 되는 초등학교 정규 체육시간의 정상화, 내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택천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위원장(창덕여고 수석교사)은 근본적 해결책으로 "초등학교 1~2학년 체육교과 독립과 전문성 있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증원"을 주장했다. "초등학교 1~2학년 체육은 여전히 음악, 미술 통합교육과정인 '즐거운 생활'로 묶여 있다. 비만 예방, 운동습관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체육활동을 통합교육과정이 막고 있는 것"이라면서 "'활기찬 생활'로 체육교과가 독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초등 체육수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스포츠강사의 확대도 강조했다. 스포츠강사는 2008년 이명박 정권 시절 '초등체육수업의 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체육 전문강사가 담임교사의 책임하에 정규체육수업 주 21시수를 보조한다. 체육수업의 질적 향상을 이끄는 스포츠강사에 대한 '수용자' 학생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다. 2020년 문체부 조사 결과, 학생 종합 만족도는 94.2점, 강사의 종목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는 93.6점에 달했다.

다음 장 계속

임오경 국회의원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배치'를 법제화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초등스포츠강사는 1888명, 전국 6100여 개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배치해 학교체육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전국초등교사노조의 반발이 거셌다. '스포츠강사는 초등교육 자격자가 아니며 체육교육을 활성화하려면 초등교육 전공 체육전담 교사를 육성,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초등체육을 둘러싼 교사와 스포츠강사의 '밥그릇' 다툼으로 비화되는 분위기다. 결국 본질은 '아이들의 체육시간'이다. 일단 전문성을 갖춘 스포츠강사를 확대 배치해 내실 있는 체육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교대에서 초등체육교사를 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가자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김택천 위원장 역시 "교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을 '조력자' 체육 전문지도자들이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지금 당장 체육전문교원이 제대로 양성돼 있지 않다고 미루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스포츠강사의 수적 확대만큼 중요한 건 질적 향상이다. 월급여 180만~200만원, 1년 계약직이 대다수인 이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처우 개선과 더불어 다양한 직무 연수, 주기적 재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고양하고 강화해나갈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시도 교육청, 학교별 제각각이 아닌 전국 스포츠강사들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역량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한 스포츠강사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인증제도 검토할 만하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스마트' 세상에서 스포츠강사의 정보력과 전문 역량은 아이들의 건강 및 행복지수, 학교체육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전북 정읍 초등학교에서 7년째 스포츠강사로 일하고 있는 김진오씨(40)는 "아이들의 체력 향상, 면역 강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선 체육시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아이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종목, 전문가 초청 강습회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현장의 갈증을 전했다. 부산서 일하는 장상현 스포츠강사(47)는 "마스크를 쓰다보니 아이들이 격렬한 운동을 못한다. 건강 염려증도 심해졌다. 조금만 뛰면 어지럽다며 보건실로 가는 아이들도 많아졌다"며 현장서 체감한 학생들의 체력 저하를 언급했다.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운동으로 땀 흘리는 게 몇 번이냐고 물어보면 '한번도 없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심각하다"고 했다.

장 강사는 스포츠강사 확대와 관련 "단순한 수적, 양적 확대는 원치 않는다. 수업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스포츠강사의 질적인 향상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체육시간은 어떤 교사, 어떤 스포츠강사를 만나느냐에 좌우된다. 특히 초등학교는 단순놀이식 레크리에이션 위주로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기에 제대로 배워야 어른이 돼서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어렸을 때 재미를 느낀 운동 경험이 없으면 생활체육으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스포츠강사가 농구에 비중을 두면 아이들은 농구만 배운다. 다양한 종목을 접하기 어렵다. 축구를 잘하는 애가 있고, 육상을 잘하는 애가 있다. 다양한 종목과 프로그램을 배우고 접할 기회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선정중이다. 체육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스포츠는 복지'라고 강조해왔듯이 현재 체육공약도 심도있게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은 물론 선수, 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 스포츠산업은 물론 초등스포츠강사, 1인 1종목 등 당선인의 모든 학교체육 관련 공약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체육회 스포츠과학연구소, 체육인 유전자 분석·활용

광주체육회 스포츠과학연구소가 과학적 훈련 지원을 위해 지역의 대표 체육인의 유전자를 분석한다.

광주체육회는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스포츠 유전자(DNA)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스포츠 유전자 지원사업은 육상의 김국영 등 지역을 대표하는 체육인의 유전자 23개를 확보해 분석한다.

또 신인선수 발굴과 몸상태에 맞는 훈련법 개발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부상 선수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이번 사업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 교실과 협업해 추진된다.

광주체육회 관계자는 "스포츠과학연구소는 유전자 확보를 위해 광주체육고등학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지역 체육발전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육기자연맹 '새정부 스포츠정책 세미나' 18일 개최



한국체육기자연맹(회장 양종구)이 체육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점검하고 새 정부의 과제를 짚어 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한국체육기자연맹은 오는 18일 오후 2시30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국 스포츠의 미래와 새 정부의 과제'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연다.

정부와 스포츠 관련 기관 및 협력단체, 학계, 한국체육기자연맹 소속 기자 등 100여 명이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3명의 발제자가 현재 체육 정책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상명대학교 스포츠ICT융합학과 유상건 교수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박동호 교수 ▲SBS 권종오 스포츠취재부 선임기자가 발제자로 나선다.

3명은 발제를 마친 후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레저학과 조욱연 교수의 진행으로 질의 및 토의 시간을 가진다.

'한국 스포츠의 미래와 새 정부의 과제' 세미나는 한국체육기자연맹이 주최하고, 한국기자협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다.

양종구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체육과 교수 등 학계 관계자와 스포츠 소식을 보도하는 체육기자가 함께 한국 체육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장이자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 한국 스포츠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며 "연맹은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한국 체육을 건전하게 발전시킬 구체적인 방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치맥하며 소리질러!’... 25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가능

25일부터 영화관, 실내체육, 종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국내 프로스포츠 경기장 관전 문화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8일부터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더불어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25일부터 해제된다.

그동안 실내체육시설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면서 프로야구의 경우 고척돔에서만 경기장 내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었다.

또 겨울철 실내 스포츠인 농구와 배구 역시 실내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돼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프로야구의 경우 전 경기장에서 취식이 가능해지고, 플레이오프가 진행 중인 프로농구장에서도 음식물을 먹으면서 응원할 수 있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관계자는 "방역 당국의 실내 경기장 취식 허용을 환영한다"며 "실내 경기장이라는 이유로 고척돔에서만 취식을 못 하는 상황에 야구팬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밝혔다. KBO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팬들이 주로 집에서 TV로 경기를 관전해온 관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폭발적인 관중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고척돔에서도 '치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반겼다.

20일부터 4강 플레이오프를 시작하는 KBL은 다음 주에 경기장 내 취식 및 육성 응원과 관련한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KBL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관련은 각 구단이 연고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관중 수용 규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왔다"며 이번에도 KBL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각 구단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실내 취식 및 육성 응원 등의 허용 여부를 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1-2022시즌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에는 서울 SK-고양 오리온, 수원 kt-안양 KGC인삼공사 등 수도권 팀들만 진출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셜 빅데이터 동향 분석 정보지 발간

<https://www.spo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7503>

상이군인 체육대회 오늘 개막... 양궁 첫 메달 도전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41706431209574>

코로나로 연기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8월 확정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12_0001830201&cID=14001&pID=14000

체육진흥공단,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서 최고등급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14_0001833696&cID=10501&pID=10500

옥천 다목적체육센터 내년 첫 삽, 2025년 준공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4048800064?did=1195m>

포항시체육회, 해양레포츠 집중 육성 8개교 선정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14_0001833422&cID=10810&pID=10800

광주시체육회, 체육인 취업 지원사업 착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41517203068698>

체육회-장애인체육회, 국가대표 훈련지원 제도개선 협력체계 구축

<https://www.news1.kr/articles/?4646770>

인천시, 전국 최초 공공체육시설 기반 스포츠창업 지원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12_0001830351&cID=10802&pID=14000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